

「漢字語一する」動詞와 「漢字語一되다」 動詞의 對應 關係考察

金 勝 漢*

目 次

| | |
|------------------------|-------------------------------|
| I. 序 論 | 2.2. 自・他動詞에 의한 對應關係 |
| 1.1. 研究 目的 | 2.3. 先行要素에 의한 對應關係 |
| 1.2. 研究 方法 | 2.4. 「～ている・～である」에 의한 對 應關係 |
| II. 本 論 | III. 結 論 |
| 2.1. 韓國語의 「一하다」와 「一되다」 | |

I. 序 論

1. 研究 目的

韓・日兩國語(以下, 兩國語라 한다)는 文法面에서 類似한 점이 많기 때문에, 韓國人이 日本語를 배우는 데에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反面에 이러한 類似點이 日本語다운 表現을 익히는 데는 장애요인이 되기도 한다.

특히, 日本語는 韓國語와 類似하다고 생각하는 데서 오는 오류 중의 하나가 「漢字語一する」動詞(以下, 「一する」動詞라 한다)를, 「漢字語一하다」動詞(以下, 「一하다」動詞로 한다)로 해야 할 때, 「漢字語一되다」動詞(以下, 「一되다」動詞로 한다)로 한다든가, 「一되다」動詞로 하여야 할 때 「一하다」動詞로 하는 것이다.¹⁾

1) 漢字語인 名詞에 日本語에서는 「一する」가, 韓國語에서는 「一하다」, 「一되다」가 붙어서 動詞로 쓰일 때, 이들을 각각 「漢字語 一する」動詞, 「漢字語 一하다」動詞, 「漢字語 一되다」動詞로 부르기도 한다. 단, 本稿에서는 「運動, 研究, 報告」등과 같은 二字漢字語에 「一する」「一하다」「一되다」가 붙어서 動詞를 만드는 경우만 취급하기로 한다.

* 人文大學 專任講師

- (1) a、代表者が、そのグループの意見を指導者に報告する。(中3-27)²⁾
 b、代表자가, 그 그룹의 意見을 指導者에 報告 { 한 / *된 } 다.
- (2) a、人間の持つ悪魔性と人間性を陶冶するのは相対立し、矛盾する概念である。(高3-48)³⁾
 b、人間이 가지는 悪魔性과 人間性を 陶冶하는 것과는 서로 對立되고, 矛盾 { *하 / 되 } 는 概念이다.
- (3) a、ぼくは目を凝らして空を見たが、なにか粒状のものが、密集しているような感じで、……(高1-189)。
 b、나는 뚫어지게 하늘을 보았지만, 무엇인가 粒狀인 것이, 密集 { 하여 / 되어 } 있는 듯한 느낌
 이어서,

위 用例에서 보듯이 (1a)의 「報告する」는 (1b)에서는 「報告하다」로 해야지 「報告되다」로 하면 잘못이다. 또, (2)의 「矛盾する」는 「矛盾하다」가 아니라, 「矛盾되다」로 하여야 한다. (3)의 「密集する」는 「密集하다, 密集되다」가 다 되는 것 같다.

(1) ~ (3)에서와 같이, 「-する」動詞가 단순히 「-하다」動詞와만 對應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本論文에서는 「-する」動詞가 어느 경우에 「-하다」動詞 또는 「-되다」動詞와 對應되는가를 考察하고자 한다.

本稿에서는 日本의 初(小)·中·高等學校의 國語教科書에서 뽑아온 총 697⁴⁾개의 用例를 中心으로 考察하기로 한다.

2. 研究方法

日本語의 「漢字語 -する」動詞를 韓國語로 해석할 때는,

- ① 「-する」動詞가 「-하다」動詞와 對應되는 경우
- ② 「-する」動詞가 「-되다」動詞와 對應되는 경우
- ③ 「-する」動詞가 「-하다」動詞 및 「-되다」動詞와 對應되는 경우

등의 세 가지로 나뉜다.

그런데, 위 세 가지로 나뉘는 요인은

- 2) 志賀直哉外, 「(日本)中學校國語三」, 學校圖書株式會社, 1971, p.27. 에서 인용한 用例이다. 以下, (中1-), (中2-)도 같은 意味이다.
- 3) 西尾實外, 「(日本)高等學校 現代國語3 二訂版」, 筑摩書房, 1960, p.48. 에서 引用한 用例이다. 以下, (高1-), (高2-)도 같은 意味이며, 「高1- 」은 1978, 「高2- 」는 1979年度 發行이다.
- 4) 같은 漢字語에 대한 例文이 여러 개 있어도 하나의 用例로 취급했다. 예를 들어 「完成する」는 17개의 例文이 있었으나, 1개의 用例로 취급했다.

- ① 自・他動詞
- ② 先行要素
- ③ 「～ている」, 「～てある」

와 관계가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이러한 요인들과 관련지어서 「-する」動詞과 「-하다」動詞 또는 「-되다」動詞의 對應關係를 考察하기로 한다.

Ⅱ. 本 論

2.1. 韓國語의 「-하다」와 「-되다」

「하다」는 크게 動詞인 「하다」와 接尾辭인 「-하다」로 나눌 수 있다. 「-하다」가 接尾詞로 쓰일 때는 名詞나 副詞 뒤에 붙어서 動詞, 形容詞 등의 파생어를 만든다.⁵⁾ 「하다」는 一般的으로 他動詞로 취급되고 있으나,⁶⁾ 「運動하다」와 같이 「運動」이라는 名詞에 「-하다」가 붙어서 형성된 파생어인 경우에는 自動詞로도 사용되고 있다.

「-되다」는 學者들에 따라 크게 두 견해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김 민수님⁷⁾에 의하면, 「-되다」를 「당하다, 받다」와 더불어 「-하다」의 受動形으로 보고 있다. 또한, 성 광수님⁸⁾도, 이 「-되다」를 「받다, 듣다, 당하다, 맞다」와 함께 「-하다」의 수동으로 볼 수 있다는 주장이다. 최 현배님⁹⁾도 「-되다」의 「-되-」가 「걱정되다, 공부되다, 연구되다, 주목되다, 게재되다, 결박되다」등에서와 같이 被動補助語幹으로 쓰일 때는 受動으로 취급하고 있다.

이에 反하여, 임 흥빈님¹⁰⁾은 「공부되다, 연구되다」등에 나타나는 「-되다」는 受動과는 무관한 것으로 說明하고 있다. 또한, 「새 우리말 큰 사전」¹¹⁾에 의하면, 「-되다」는 接尾辭로서,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동사적 名詞에 붙어 自動詞가 될 수 있음을 說明하고 있다.

즉, 김 민수, 성 광수, 최 현배님은 「-되다」를 受動形으로 認定하는 입장이고, 임 흥빈님과 「새 우리 말 큰 사전」에서는 「-되다」를 受動形으로 認定하지 않고, 自動詞로 보고 있음을

5) 최 현배, 「우리 말본」, 경음사, 1977, pp.673-677.

6) 신 기철·신용철, 「새 우리 말 큰사전(增補9版)」, 1980, p.3611.

7) 金 敏洙, 「國語文法論」, 一潮閣, 1983, p.273.

8) 성 광수, 「「-하다」動詞의 被動과 使動」, 「余泉 徐炳國博士 華甲紀念論文集」, 螢雪出版社, 1979.

9) 최 현배, 上揭書, pp. 429-431.

10) 任洪彬, “被動性과 被動構文”, 「논문집」 12, 국민대학교, 1978, pp.47-56.

11) 신 용철·신 기철, 上揭辭典, p.934.

알 수 있다.

그러나, 筆者는 「-되다」를 「-하다」의 受動形 또는 自動詞로 限定시키지 않고, 쓰임에 따라서 受動形으로도, 自動詞로도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2.2. 自·他動詞에 의한 對應關係

「-する」動詞와 「-하다」動詞·「-되다」動詞와의 對應關係를 自·他動詞를 中心으로 考察하여 보기로 한다. 辭典의 自·他動詞 標記에 따르면, 日本語의 경우는 「-する」動詞¹²⁾가,

- ① 自動詞로만 標記된 경우
- ② 他動詞로만 標記된 경우
- ③ 自·他動詞 양 쪽으로 標記된 경우

등의 세 가지 형태가 있었으며, 韓國語의 경우도 「-하다」動詞¹³⁾가

- ① 自動詞로만 標記된 경우
- ② 他動詞로만 標記된 경우
- ③ 自·他動詞 양 쪽으로 標記된 경우

④ 위의 ①·②·③의 각각에 自動詞인 「-되다」가 함께 標記되어 있거나, 「-되다」만 標記되어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따라서, 自·他動詞에 의거하여, 「-する」動詞와 「-하다」動詞·「-되다」動詞의 對應關係를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2.2.1. 日「自動詞」와 韓¹⁴⁾「自動詞」

- (4) a、科學者が、平和運動の先頭に立って活動しているのは周知のところでありますが、(高2-254).
- b、科學者が、平和運動の先頭に 서서 활동{하/*되}고 있는 것은 周知하는 바입니다만,

(4a)의 「活動する」는 有情性인 「科學者」를 主語로 하고 있다. 「科學者」는 動作者로서 능동적이다. 이 경우, (4b)에서는 「活動하다」와 對應되어야만 適格文이 됨을 보여주고 있다. 「漢字語-する」動詞가 修飾語의 역할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 보면,

12) 金田一春彦外, 學研國語大辭典, 學習研究社, 1981. 參照.

13) 신 기철·신 용철. 前掲 辭典 參照.

14) 「日」은 日本語, 「韓」은 韓國語를 意味한다.

- (5) a、會議に參加する全員は、みんな平等に發言できるし、…… (中 2-124).
 b、會議에 參加 {하/*되}는 全員은, 모두 平等하게 發言할 수 있고,

(4a)의 「活動する」는 述語의 역할을 하고 있지만, (5a)의 「參加する」는 主語인 「全員」을 修飾하는 連體修飾語로 사용되고 있다. (5a)의 「全員」은 사람의 集合體를 나타내기 때문에 有情性인 動作者로 생각할 수 있다. 이 경우도 (5b)의 「參加하다」와 對應되어야 適格文이 된다.

- (6) a、その他兩生類のカエル…… など、その大部分は淡水に強く密着したもばかりだそうである。
 (高 2-302)
 b、그 밖에 兩生類인 개구리…… 등, 그 大部分은 淡水에 강하게 密着 {*한/되}것 뿐이라고 한다.

(6a)의 主語인 「大部分」은 「兩生類」의 集合體를 가리키고 있다. 「兩生類」그 자체는 有情性이지만 積極적이고 능동적인 動作者로 보기는 어렵다. (6a)의 「密着する」는, (4)~(5)의 경우와는 달리, (6b)의 「密着되다」와 對應되고 있다. (4)~(6)에서는 서로 다른 「活動する」, 「參加する」, 「密着する」의 각각에 대하여 主語의 有·無情性이 「-する」動詞와 「-하다」動詞·「-되다」動詞의 對應關係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 보았다.

같은 「-する」動詞이지만 主語의 有·無情性이 다를 경우를 살펴 보면,

- (7) a、清(きよ)は、おれがうちでも持って獨立したらいっしょになる氣がした。(中 2-166)
 b、清(키요)는, 내가 집이라도 가지고 獨立 {한/*되}다면 함께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

(7a)의 「獨立する」에 對한 主語는 「おれ(나)」이다. 「おれ」는 有情性이고 능동적인 動作者라 할 수 있다. 이 경우 (7a)의 「獨立する」는 (7b)의 「獨立하다」와 對應되어야 자연스러워진다.

- (8) a、祖國 ポーランドが、百五十年ぶりで、りっぱに獨立したのである。(小 6上-136)¹⁵⁾
 b、祖國 폴란드가 150年만에 當當하게 獨立 { *하였/되었}다.

(8a)의 主語인 「ポーランド(폴란드)」는 無情性이기 때문에 수동적이다. 이 경우, (8a)의

15) 西尾實外, 「(日本國民學校)新版標準國語」, 教育出版株式會社, 1972의 6學年. 上. p.136. 에서 引用한 例文이다.

「獨立する」는 (8b)의 「獨立되다」와 對應되어야 자연스러워진다. (7)~(8)의 경우로 보아, 兩國語 모두 自動詞일 때 「-する」動詞가 「-하다」動詞, 또는 「-되다」動詞와의 對應關係는, 그 漢字語 動詞에 대한 主語의 有·無情性과도 관련이 있다고 본다.

主語는 나타나 있으나, 그 性質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 대하여 살펴 보면,

(9) a, 一瞬、八つの固まりが完全に一致して動き始めた。(中 1-155)

b, 그 순간, 여덟 개의 덩어리가 완전히 一致 { 하여 / 되어 } 움직이기 시작했다.

(9a)에서 主語인 「固まり」를 有情物인 動作者로 假定하여 보면,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동작이 가능하다고 본다. 이 경우 (9a)의 「一致する」는 (9b)의 「一致하다」와 對應되어야 자연스러워진다.

반면에, 主語인 「固まり」를 無情性으로 假定하여 보면, 스스로의 동작보다는 외부의 작용에 의하거나, 도움을 받아서 이루어진 상태에 중점이 두어진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소극적이고 수동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9b)의 「一致되다」와 對應되어야 자연스럽게 느껴진다.

(10) a, ぼくは目を凝らして空を見たが、なにか粒状のものが、密集しているような感じで、…… (高 1-189).

b, 나는 뚫어지게 하늘을 보았지만, 무엇이든 粒狀인 것이 密集 { 하여 / 되어 } 있는 듯한 느낌이어서,

(9a, b)의 對應關係로 미루어 볼 때, (10a)의 「密集する」가, (10b)의 「密集하다」와 對應될 때에는 어떤 물체가 능동적인 움직임을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반면에 (10b)의 「密集되다」와 對應될 때에는 외부의 작용에 의하여 하늘에 무엇인가가 모여 있는 상태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する」動詞가 「-되다」動詞와만 對應되고, 「-하다」動詞와는 절대로 對應될 수 없는 경우에 대하여 살펴 보면,

(11) a, 言うことをつじつまが合わないことに對して、「きみの言うことは矛盾している。」などと言う。(中 2-206)

b, 말하는 것이 이치가 맞지않는 것에 대하여 「네가 말하는 것은 矛盾 { *한 / 된 } 다.」 등이라 말한다.

(11a)의 「矛盾する」는 (11b)의 「矛盾되다」와 對應되어야지 「矛盾하다」와 對應될 수는 없다. 韓國語에 「矛盾하다」라는 表現은 存在하지 않는다. 「矛盾되다」는 수동적이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有情性인 것을 主語로 취할 수 없고, 無情性인 것만이 그 主語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筆者가 고찰한 바로는 2.2.1에 해당되는 「-する」動詞의 用例 202개 가운데서, 「-하다」動詞와 對應되는 것이 145개이고, 「-되다」動詞와 對應되는 것이 20개이고, 「-하다·-되다」動詞의 양쪽 모두와 對應되는 것이 37개였다.

2.2.2. 日「自動詞」와 韓「他動詞」

- (12) a、正義感の強い主人公が、俗世間の不正に反抗し、(中2-172)
 b、正義感이 강한 主人公이 속세의 不正에 反抗 { 하여/*되어 },

(12)의 「反抗」은 「-する」가 붙으면 自動詞로, 「-하다」가 붙으면 他動詞로 쓰이는 漢字語이다. 이에 속하는 어휘로는 「應募, 習熟, 斷言, 反抗, 反對, 和解, 注目」등이 있었다. 이러한 어휘들은 모두 人間の 行爲, 感情 등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 主語는 모두 有情性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어휘들은, (12a)와 (12b)의 對應關係와 같이 「-する」動詞는 「-하다」動詞와만 對應되었다.

- (13) a、その意見は、どんな場合にも通用するか、(中2-203)
 b、그 意見은, 어떤 경우에도 通用 { *하/*되 } 는가,

(13)의 「通用」에서 「通用する」는 自動詞이고, 「通用하다」는 他動詞이나, 自動詞인 「通用되다」로도 쓰일 수 있는 점이 (12)의 漢字語와 다르다. 이와 같은 漢字語인 「斷絶, 完結, 普及」등의 「-する」動詞는, (13a)와 (13b)의 對應關係와 같이 모두 「-되다」動詞와 對應되었다.

(13)에서, 無情性이 主語가 되는 것은 2.2.1의 경우와 같다고 하겠다.

2.2.2에 해당되는 「-する」動詞의 用例 11개 가운데서, 「-하다」動詞와 對應되는 것이 7개, 「-되다」動詞와 對應되는 것이 4개였다.

2.2.3. 日「自動詞」와 韓「兩動詞」¹⁶⁾

日本語에서는 自動詞이지만, 韓國語에서는 兩動詞로 쓰일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고찰하여 보면,

- (14) a、ぼくはそんな意見に賛成することはできません。(高1-174)
 b、나는 그런 意見에 賛成 { 하/*되 } 수는 없습니다.

16) 金 敏珠, 前掲書, p.134.

o “같은 동사라도 쓰임에 따라 自·他動詞인 두 기능으로 양용되는 것을 「兩用動詞」”라고 하였다.

(14a)의 「賛成する」는 自動詞이나, 「賛成하다」는 兩動詞로 쓰일 수 있는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14b)에서는 自動詞로 쓰이고 있다. (14a)의 「賛成する」는, 有情性인 「ぼく」를 主語로 하고 있다. 「ぼく」는 動作者로서 능동적이기 때문에, (14b)에서는 「賛成하다」와 對應된다고 볼 수 있다. (14a)와 (14b)의 對應關係는 兩國語 모두 自動詞인 경우와 같다.

(15) a、これで、一つの思想が定着したのである。(高2-93)

b、이것으로 한 思想이 定着 { *하엿/되엿 } 던 것이다.

(15a)에서 「定着する」의 主語인 「思想」은 無情物이기 때문에 수동적이라 할 수 있다. 이 경우는 「定着되다」와 對應되어야 자연스러워진다. (14)~(15)의 결과에서 漢字語가, 「一する」動詞에서는 自動詞이고, 「一하다」動詞에서는 兩動詞의 기능을 가질 수 있지만 이것이 自動詞로 쓰이면, 「一する」動詞는 「一되다」動詞와 對應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16) a、近ごろでは生活が大きく變化してきたため、(中1-83)

b、요즈음에는 生活이 크게 變化 { 하여/되어 } 왔기 때문에,

(16a)의 「變化する」는 自動詞로 쓰이고 있으며, 無情性인 「生活」을 主語로 하고 있기 때문에, 2.2.1의 對應關係로 미루어 보면, (16b)의 「變化되다」와 對應되는 것이 일반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16a)의 「變化する」는, (16b)의 「變化하다」·「變化되다」의 양쪽 모두와 對應되고 있다. 이런 현상은 「變化」라는 漢字語의 어휘적 성질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漢字語의 어휘적 성질에 따른 「一する」動詞와 「一하다」動詞·「一되다」動詞와의 對應關係는 2.3에서 考察하기로 한다.

2.2.3에 해당되는 「一する」動詞의 用例 52개 가운데서, 「一하다」動詞와 對應되는 것이 45개, 「一되다」動詞와 對應되는 것이 3개, 「一하다·一되다」動詞의 양쪽 모두와 對應되는 것이 4개였다.

2.2.4. 日「他動詞」와 韓「自動詞」

(17) a、當然豫想していた叫びも、何の物音も、やぶの中からは起こらない。(中3-136)

b、당연히 豫想 { 하/되 } 고 있었던 부르짖음도, 아무런 소리도, 덩불 속에서는 일어나지 않았다.

(17a)의 「豫想する」는 (17b)의 「豫想하다」·「豫想되다」의 양쪽 모두와 對應되고 있다.

「豫想하다」는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행위로 볼 수 있으며, 「豫想되다」는 수동적으로 볼 수 있다. 2.2.4에 해당되는 漢字語는 「豫想」 하나뿐이었다.

2.2.5. 日「他動詞」와 韓「他動詞」

- (18) a、大ぜいの人を紹介するときには、女性を先にする慣習がある。(中3-78)
b、여러 사람을 紹介{ 한/*될 } 때에는, 女性을 먼저하는 관습이 있다.

(18a)의 「紹介する」는 (18b)의 「紹介하다」와 對應되어야 適格文이 된다. 이것은 兩國語 모두 他動詞일 때, 일반적으로 「-する」動詞는 「-하다」動詞와 對應됨을 보여주는 用例라 하겠다.

- (19) a、日本の音楽は、調性をひたすら體驗的なものとして感じ、傳承してきたのである。
b、日本の 音樂은, 調性을 오지 體驗적인 것으로서 느끼고, 傳承{ *하여/되어 } 왔던 것이다.

(19a)의 「傳承する」는 (19b)의 「傳承되다」와 對應되고 있다. 이것은 「傳承」이 韓國語에서는 「-되다」가 붙어서, 自動詞인 「傳承되다」로도 쓰일 수 있기 때문에 여겨진다. 이 경우 「傳承」의 어휘적인 성질은 능동적이고 의도적이 아니라, 수동적인 意味를 내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20) a、もし、このおもちゃを密閉したガラス箱の中に閉じこめておくと、(中2-35)
b、만약, 이 장난감을 密閉{ 한/된 } 유리상자 속에 가두어 놓으면,

(20a)의 「密閉する」는 (20b)의 「密閉하다」·「密閉되다」의 양쪽과 對應된다. 이 때, 「密閉하다」는 積極的, 能動的인 意味가 강한 데 반하여, 「密閉되다」는 消極的이며 受動的인 意味가 강한 것으로 여겨진다.

- (21) a、小山君たちが調べている本には、……、くわしく説明してある部分が三十ページ以上ものっています。(小・4下-46)
b、小山君들이 調査하고 있는 책에는, ……., 자세하게 説明{ *하여/되어 } 있는 부분이 30페이지 이상이나 실려있습니다.

(21a)의 「説明する」는 (18a)의 「紹介する」와 같은 성질의 漢字語動詞이다. 그럼에도(21b)의 「説明되다」와 對應되고 있는 것은 「~てある」가 접속되었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ている, ~てある」의 接續에 따른 對應關係는 2.4에서 論하기로 한다.

- (22) a、治療している間に死なれたら、自分たちの名譽が失墜してしまうからです。(中 3-156)
b、治療하고 있는 동안에 죽으면, 자기들의 명예가 失墜 { *하여/되어 } 버리기 때문입니다.

(22a)의 「失墜する」는 (22b)와 같이 「失墜되다」와만 對應되어야지, 「失墜하다」와는 對應될 수 없다. 「失墜する」는 수동적 의미를 내포하고 있기 때문에 動作者를 主語로 취할 수 없고, 無情物만이 主語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2.2.5 에 해당되는 用例 323 개 가운데서 「-する」動詞가, 「-하다」動詞와 對應되는 것이 314 개, 「-되다」動詞와 對應되는 것이 7 개, 「-하다·-되다」動詞의 양쪽 모두와 對應되는 것이 2 개였다.

2.2.6. 日「他動詞」와 韓「兩動詞」

- (23) a、 「わ」は、……、その特色を形成する代表的な語である。(高 3-156)
b、 「わ」¹⁷⁾ 는, ……、그 特色을 形成 { 하/*되 } 는 代表的인 말이다.

(23a)의 「形成する」는 (23b)의 「形成하다」와 對應되고 있다. 이것은, 「形成하다」는 兩動詞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23b)에서는 他動詞의 역할을 하기 때문으로 여겨진다. 즉 2.2.5-(18)의 對應關係와 같은 것으로 볼 수 있다.

2.2.6 에 해당되는 27 개의 用例 중에서, 「-する」動詞는 모두 「-하다」動詞와만 對應되었다.

2.2.7. 日「兩動詞」와 韓「自動詞」

- (24) a、それは、詩が《印象を凝縮し、集中しようとする精神活動》の表現だということを意味している。(高 3-265)
b、그것은, 詩가 《印象을 凝縮 { 하/*되 } 고, 集中하려고 하는 精神活動》의 表現이다 라고 하는 것을 意味하고 있다.

「凝縮する」는 兩動詞의 기능을 가지고 있지만, (24a)에서는 他動詞로 쓰이고 있다. 이때, (24a)의 「凝縮する」는 (24b)의 「凝縮하다」와 對應되고 있다.

- (25) a、素粒子の示している最も特徴的な性格は、相互轉化性でありまして、常に創造されたり、消滅したり、絶え間ない變化の中にあることでもあります。(高 2-243)

17) 「わ」는 日本語의 終助詞이다.

- b、素粒子가 나타내고 있는 가장 特徵的인 性格은, 相互轉化性이어서, 항상 創造되기도 하고, 消滅{ *하/되 }기도 하고, 끊임없는 變化 속에 있는 것입니다.

(25a)의 「消滅する」는 (25b)의 「消滅되다」와 對應되어야만 자연스러워진다. (25a)의 文章에서 「消滅する」만 獨立시켜 놓고 보면, 「消滅하다」·「消滅되다」의 어느쪽과도 對應된다. 그렇지만, 「~たり, ~たり」는 對等한 立場에서 並列關係를 나타내기 때문에, (25a)의 「創造されたり, 消滅したり」를 「創造되기도 하고, 消滅하기도 하고」로 해석하면 부자연스러워진다. 「消滅する」가 「消滅되다」와 對應되는 것은 接續助詞 「~たり, ~たり」의 影響인지, 「消滅」이라는 漢字語의 어휘적 성질의 影響인지는 좀 더 檢討할 必要가 있다고 본다.

- (26) a、また仮に人類が滅亡しても依然地球は存續するかもしれませんが、(高3-41)
b、또한 만약에 人類가 滅亡하여도 여전히 地球는 存續{ 할/될 }지도 모릅니다만,

(26a)의 「存續する」는 (26b)의 「存續하다」·「存續되다」의 양쪽과 對應되고 있다. 이것은 2.2.3-(16)의 「變化」와 같이, 「存續」이라는 漢字語의 어휘적 성질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2.2.7에 해당되는 用例 15개 가운데서 「-する」動詞가 「-하다」動詞와 對應되는 것이 11개, 「-되다」動詞와 對應되는 것이 1개, 「-하다·-되다」動詞와 對應되는 것이 3개였다.

2.2.8. 日「兩動詞」와 韓「他動詞」

- (27) a、このことが人類の將來を決定する。(中3-135)
b、이것이 人類의 將來를 決定{ 한/*되 }다.

「決定する」는 兩動詞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漢字語動詞이지만, (27a)에서는 他動詞로 쓰이고 있다. 이 때, (27a)의 「決定する」는 (27b)의 「決定하다」와 對應되고 있다.

- (28) a、畫家が壯大華麗な作品を完成するまで、……。 (高2-228)
b、畫家가 壯大華麗한 作品을 完成{ 하/*되 }기까지, …….

(28a)에서는, 「完成する」는 他動詞로 쓰이고 있으며, 「畫家」라는 有情性인 動作者가 主語로 되어 있기 때문에, (28b)의 「完成하다」와 對應되는 것으로 여겨진다.

- (29) a、音はそれによって光彩を放ち、音樂として完成する。(高1-27)
b、音은 그것에 의해서 光彩를 발하고, 音樂으로서 完成{ *한/된 }다.

(29a)의 「完成する」는 (28)의 對應關係와는 다른 면을 보여 주고 있다. (29a)의 「完成する」는 自動詞로 쓰이고 있으며, 「音」이라는 無情性이 主語가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동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29a)의 「完成する」는 (29b)의 「完成되다」와 對應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2.2.8에 해당되는 34개의 用例 가운데서 「-する」動詞가 「-하다」動詞와 對應되는 것이 28개, 「-하다·-되다」動詞와 對應되는 것이 6개였다.

2.2.9. 日「兩動詞」와 韓「兩動詞」

- (30) a、この文章は「花とみつばち」に筆者がこの教科書のために加筆したものである。(中 1-77)
b、이 文章은 「꽃과 꿀벌」에 筆者가 이 教科書를 위하여 加筆{한/*된} 것이다.

「加筆する」는 兩動詞로 쓰일 수 있지만, (30a)에서는 自動詞로 쓰이고 있다. (30a)의 「加筆する」는 有情性인 「筆者」를 主語로 취하고 있다. 「筆者」는 動作者로서 능동적이기 때문에 (30b)의 「加筆하다」와 對應된다고 볼 수 있다.

- (31) a、運動・寒さ・食物により、生物體のガス交換は増大する。(中 2-160)
b、運動・추위・음식물에 의하여, 生物體의 가스交換은 増大{*한/된} 다.

「増大する」는 兩動詞로 쓰일 수 있고, (31a)에서는 自動詞로 쓰이고 있는 것이 (30a)의 「加筆する」와 같다. 다만, (31a)의 「増大する」는 「交換」이라는 無情性 主語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31b)의 「増大되다」와 對應되어야만 자연스러워진다.

- (32) a、それを反映するにふさわしい獨自の文章・文體を持つ。(高 2-259)
b、그것을 反映{하/*되}는 데에 어울리는 獨自의 文章・文體를 갖는다.

「反映する」는 兩動詞로 쓰일 수 있지만, (32a)에서는 他動詞로 쓰이고 있으며, (32b)의 「反映하다」와 對應되고 있다. 이러한 것은 2.2.5-(18)의 對應關係와 같은 경우로 볼 수 있다.

- (33) a、これは、後年のどういふ回想の姿勢が反映しているものと見るべきであろうか。(高 2-304)
b、이것은, 後年の 어떠한 回想의 姿勢가 反映{*하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

(33a)의 「反映する」는, (32a)의 경우와는 달리 自動詞로 쓰이고 있다. 이 때, (33b)의 「反映되다」와 對應되어야만 자연스러워진다. (32) ~ (33)에서는 兩國語 모두 兩動詞일 경

우, 그 「-する」動詞가, 他動詞로 쓰이면 「-하다」動詞와 對應되며, 自動詞로 쓰이면 「-되다」動詞와 對應되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2.2.9에 해당되는 32개의 用例 가운데서 「-する」動詞가, 「-하다」動詞와 對應되는 것이 17개, 「-되다」動詞와 對應되는 것이 5개, 「-하다·-되다」動詞와 對應되는 것이 10개였다.

2.3. 先行要素에 依한 對應關係

「-する」動詞와 「-하다·-되다」動詞와의 對應關係를 先行要素의 意味的 特質에 따라 考察하고자 한다. 「研究する, 運動する, 發達する」등의 漢字語動詞에서 先行要素인 「研究, 運動, 發達」등의 名詞가 가지는 意味的 特質은 서 정수님(1975)의 分類¹⁸⁾에 따르기로 한다.

서 정수님은 先行要素인 名詞를 실체성과 비실체성으로 나누고, 비실체성을 다시 상태성과 비상태성으로 나누고 있다. 이 때, 실체성 명사는 “동물” “장소” 등을 의미하고, 상태성인 「다행」 「확실」 등은 形容詞이기 때문에 本稿의 論議에서는 除外하고, 비상태성 名詞만 取扱하기로 한다. 비상태성 명사는 동작성과 과정성으로 下位分類하고 있었다.

2.3.1. 動作性 先行要素

- (34) a、フルーツがつねに到達しようとする音度を指向して運動する性質をもっているのに対し、(高1-27)
- b、플루우트가 언제나 到達하려고 하는 音度を 指向하여 運動【하/*되】는 性質을 가지고 있는데 대하여,

(34a)의 「運動する」는 (34b)의 「運動하다」와 對應되고 있다. (34)의 「運動」은 漢字語의 어휘구조를 분석함으로써, 그 意味的 特質이 동작성임을 입증할 수 있다.

「運動」은 「동작+동작」으로 이루어진 동작성 한자 어휘이다.¹⁹⁾

「운동, 활동, 검사, 독서, 입학, 출석, 직시, 가정, 설득, 확대」 등은 서 정수님의 論文에서 動作性 先行要素로 分類된 것들이며, 本稿의 調査例文에도 포함되어 있는 漢字語이다. 이들 漢字語들이 先行要素가 되어 있는 「-する」動詞는 모두 「-하다」動詞와만 對應되었다. 따라서, 先行要素가 動作性일 때, 「-する」動詞는 「-하다」動詞와 對應된다고 볼 수 있다.

2.3.2. 過程性 先行要素

비상태성 선행요소 중에서 어떤 대상의 수동적 움직임을 나타내는 부류가 過程性 先行要素이

18) 서 정수, 「동사 “하-”의 문법」, 형설출판사, 1975. pp.16-17. p.40.

19) 서 정수, 上揭書, p.22.

다. 先行要素가 過程性인 「-する」動詞와 「-하다·-되다」動詞와의 對應關係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35) a、人類が出現する前にも地球は存在したであろうし、
 b、人類가 出現하기 전에도 地球는 存在{하였/*되었}을 것이고,
 (36) a、すべての文章に共通することではあるが、(中 3-83)
 b、모든 文章에 共通{ *하／되 }것이지만,
 (37) a、それは人間の歴史全體を通じて發展するのである。(高 3-30)
 b、그것은 人間の 歴史 全體를 통하여 發展{하／되}는 것이다.

(35) ~ (37)의 「存在, 共通, 發展」 등은 過程性 漢字語이다. (35a)의 「存在する」는 (35b)의 「存在하다」와 對應되지만, (36a)의 「共通する」는 (36b)의 「共通되다」와 對應되고 있다.

반면에(37a)의 「發展する」는(37b)의 「發展하다·發展되다」의 양쪽 모두와 對應될 수 있다. 先行要素가 過程性 名詞인 경우에는, 「-する」動詞는 「-하다」動詞, 「-되다」動詞 및 「-하다·-되다」動詞의 세가지 경우와 모두 對應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先行要素가 過程性 일 때, 「-する」動詞는 「-되다」動詞와 對應되는 경우도 있었다.

이러한 過程性的 先行要素는 受動的인 動作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하다」를 「-되다」로 임의 교체할 수 있다.²⁰⁾

2.4. 「～ている, ～である」에 依한 對應關係

「-する」動詞에 「～ている, ～である」가 接續될 때, 「-하다·-되다」動詞와의 對應關係는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고찰해 보기로 한다.

- (38) a、(かれらは)、もっと年をとって、読み直して、初めて、實にすばらしいと感動した。(高 1-16)
 b、(그들은),²¹⁾ 더 나이를 먹고, 다시 읽고, 비로소, 참으로 훌륭하다고 感動{하였/*되었}다.

(38)의 「感動する」는 自動詞로 쓰이는 漢字語動詞이다. (38a)의 「感動する」는 (38b)의 「感動되다」와 對應되어야 適格文이 된다. 「感動する」에 「～ている」가 接續된 例文에서는 어떤 對應關係가 나타나는가를 살펴 보면 다음과 같다.

- (39) a、(かれらは)、どんなこと、どんな人物に感動しているか。(小 6下-39)
 b、(그들은), 어떤 것, 어떤 인물에 感動{하/*되}고 있는가.

20) 서 정수, 前掲書, p.40.

21) (38a)의 「かれらは」와 (38b)의 「그들은」은 本稿의 문장고찰을 위하여 보충한 것이다.

(39a)의 「感動する」는 (38a)와 달리 「～ている」가 接續되어 있지만, 역시 (39b)의 「感動하다」와 對應될 때 適格文이 된다.

- (40) a、すべての文章に共通することではあるが、(中3-83)
b、모든 文章에 共通 { *하/되 } 는 것이지만,

(40a)의 「共通する」는 (40b)의 「共通되다」와 對應될 때 適格文이 된다. 自動詞인 「共通する」에 「～ている」가 接續되는 例文을 살펴 보면,

- (41) a、二つの詩を読み比べて、……、詩情や表現で共通している點や、……。 (高2-34)
b、두 詩를 比較하여 읽고, ……、詩情이나 表現에서 共通 { *한/된 } 點이나, ……、

(41)의 例文에 나타난 바와 같이, (41a)의 「共通している」도, (41b)의 「共通되다」와 對應된다. (40)과 (41)에서와 같이 自動詞인 「-する」動詞에 「～ている」가 接續되어도, 「-되다」動詞와의 對應關係에는 아무런 變化가 없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38) ~ (41)로 미루어 볼 때, 「-する」動詞가 自動詞인 경우, 「～ている」가 接續되어도 「-하다·-되다」動詞와의 對應關係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다.

이번에는 他動詞인 「～する」動詞에 「～ている」, 「～である」가 接續될 때, 「-하다·-되다」動詞와의 對應關係에 대하여 알아 보기로 한다.

- (42) a、記録係は、……、事情を説明した。(中1-29)
b、記録係는, ……、事情을 説明 { 하였 */ 되었 } 다.

(42a)의 「説明する」는 (42b)의 「説明하다」와 對應되고 있다. (42a)에 「～ている」를 연결하여 보면,

- (42') a、記録係は、……、事情を説明している。
b、記録係는, ……、事情을 説明 { 하/*되 } 고 있다.

(42'a)는 意味上으로는, 어떤 事情을 説明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42'a)의 「説明している」가 (42'b)의 「説明하고 있다」로 해석되기 때문에, 對應關係는 (42)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である」가 接續된 例文을 살펴 보면,

- (43) a、この英語²²⁾は、……、次に障害・困難というふうに字引きに説明してある。(高3-292)

22) 「英語」는 「rub」를 뜻한다.

b、이 英語는, ……， 다음에 障害・困難이라고 하는 꼴로 辭典에 說明{ *하여/되어 } 있다.

(42a)의 「説明する」는 (42b)의 「説明하다」와 對應되고 있지만, (43a)의 「説明してある」는 (43b)의 「説明되어 있다」와 對應된다. (42) ~ (43)로 미루어 볼 때, 他動詞인 「一する」動詞과 「一하다」動詞의 對應關係에 있어서, 「一する」動詞에 「～ている」가 接續되면 아무런 變化가 없으나 「～てある」가 接續되면 「一する」動詞과 「一하다」動詞의 對應이 「一する」動詞과 「一되다」動詞의 對應으로 바뀌었다. 즉 他動詞인 「一する」動詞에 「一てある」가 接續되면 「一되다」動詞과 對應됨을 알 수 있다.

Ⅲ. 結 論

지금까지 考察한 「漢字語一する」動詞가 「漢字語一되다」動詞와 對應되는 경우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1) 「一する」動詞가 自動詞일 때, 그 主語가 有情性인 動作者이면 「一하다」動詞와 對應되고, 主語가 無情性이면 「一되다」動詞와 對應되었다.

2) 「一する」動詞가 他動詞일 때는, 「一하다」動詞와 對應되는 경우가 많았으며, 그 主語가 無情性이면 「一되다」動詞와 對應되는 경향이 있었다.

3) 「一する」動詞의 先行要素가 動作性이면 「一하다」動詞와만 對應되었고, 先行要素가 過程性이면 「一되다」動詞와 對應되는 경우도 있었다.

4) 「一する」動詞가 自動詞일 때는 「～ている」가 接續되어도 원래의 對應關係에 아무런 變化가 없었다. 「一する」動詞가 他動詞일 때는 「～ている」가 接續되어도 원래의 對應關係에 아무런 變化가 없었으나, 「～てある」가 接續되면 「一する」動詞과 「一하다」動詞의 對應이 「一する」動詞과 「一되다」動詞의 對應으로 바뀌었다.

Summary

On Correspondence of “-*suru*” of the Sino-Japanese
Verb to “-*toeda*” of the Sino-Korean Verb

Kim Sŭng-han

The main grammatical points which have been analyzed in this paper are summarized as follows:

1. In sentences whose subject is marked as [+Animate], “-*suru*” of the Sino-Japanese verb corresponds, in almost all cases, to “-*hada*” of the Sino-Korean verb; in sentences whose subject is marked as [-Animate], “-*suru*” of the Sino-Japanese verb corresponds to “-*toeda*” of the Sino-Korean verb.

2. When the preposing element of the verb in a sentence is marked as [+Action], “-*suru*” of the Sino-Japanese verb corresponds to “-*hada*” of the Sino-Korean verb; when marked as [+Process], it may correspond to “-*toeda*” of the Sino-Korean verb.

3. When “-*suru*” of the Sino-Japanese verb behaves as a transitive verb, followed by “-*te aru*”, it corresponds to “-*toeda*” of the Sino-Korean verb.